

보도자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▶ 보도일시: 2014.7.14.(월) 조간,

<인터넷 7.13(일) 12:00 이후>

▶ 총 쪽

❖ 산업보건과 과 장 고 동 우
서기관 김 정 호

☎ 044-202-7741, 010-6634-067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조심조심! 여름철 질식사고 주의보

고용부, 「질식사고 집중 예방기간」 감독 및 교육 실시

- 날씨가 더워지면서 맨홀·정화조,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의 밀폐 공간*에서 작업하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*밀폐공간 : 유기물의 부패나 미생물의 번식 등으로 산소결핍이나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(예: 맨홀, 수직갱, 각종 탱크, 정화조, 지하핏트, 분료처리장, 식품발효 및 저장조 등)

- 질식사고 대부분은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산소농도 측정, 환기 및 호흡보호구 착용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며,
 -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질식 위험이나 주의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작업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.
- 이에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7~8월을 “질식사고 중점 예방기간”으로 정해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질식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.

□ 이번에 마련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대책에 따르면,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보유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.

○ 이번 특별감독은 사업장의 밀폐공간 파악, 작업 시작 전 공기상태 측정 및 근로자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,

- 작업이 도급으로 이뤄지는 경우 유해위험 정보의 제공, 협력업체 작업관리, 연락체계 운영 및 긴급상황 훈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.

○ 또한, 지방고용노동관서(안전보건공단)를 통해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*을 하고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질식재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.

*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 (고용부 홈페이지 www.moel.go.kr)

○ 한편,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기, 이동식 환기팬, 공기호흡기 등도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상으로 대여*하고 있다.

*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.kosha.or.kr 접속 → 사업안내 → 직업건강실에서 “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신청” 클릭 후 관할 지역본부/지사를 선택하여 신청 → 해당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수령

□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“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작업하는 것과 같다”고 강조하며

○ “밀폐공간 작업을 할 때 작업 전에 반드시 공기상태를 측정하고, 충분한 환기와 적정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사업장에서 사고예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김정호서기관(☎ 044-202-7741)에게 연락 주시기
바랍니다.